선택 4·11 D-7

이곳이 뜨겁다 ▶ 나주·화순

"현역이 낫다" "그래도 민주" 표심 팽팽

■ 민심 들어보니

이름	문종안(66·새)	배기운(61·민)	전종덕(40·통)	최인기(68·무)
기호	1	2	4	6
주요 경력	광주서부교육청 교육장 직무대리	전 16대 국회의원	전 전남도의원	18대 국회의원
주요 공약	·농촌살리기 정책 ·농촌형 명품교육 정책 ·관광벨트조성 및 일자리 창출	·명품혁신도시 조성 ·노인·여성위한 복지 혁명추진 ·살기좋은 나주·화순 만들기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무상의료·교육혁신 ·으뜸 농업도시 나주 생명의학도시 화순	·화순, 생명의학산업 중심 ·보호와 육성통한 농업발전 ·영산강 관광벨트 조성

※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통=통합진보당, 무=무소속

나주·화순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문종안, 민주통합당 배기운, 통합진보당 전종덕, 무소속 최인기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배기운, 최인기 두 후보가 양강 구도를 그리며 여의도 입성을 놓고 피말리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

두 후보는 지난 17대 총선 이후 8년만에 리턴매치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현역 의원이던 배 후보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 최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에는 최 후보가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나주·화순은 광주와 맞닿아 있어 광주의 분위기가 다른 농촌지역보다 훨씬 많이 전해진다. 광주에서 일고 있는 '비(非) 민주당' 바람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다.

택시기사 이모(47·나주시 남평읍)씨는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원한다면서 공천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의심하게 한다. 다양한 성향의 인물을 통해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친노끼리 해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 결국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영산포 장터에서 만난 상인 김모(55)씨는 "무소속 후보가 인물이나 능력 면에서는 월등히 낫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의 인물 평가는 후보들 간 비교보다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이어 장관을 두 차례나 지낸 현역 국회의원 무소속 최인기 후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때문에 갈리고 있었다.

나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만난 최모(49·여)씨는 "최 후보가 능력이 있긴 하지만, 오래 했으니 다른 후보가 의원이 돼도 괜찮을 것"이라며 "나머지 후보 중 괜찮은 후보를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년층에서는 "최 후보 외에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화순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함께 화순 출신의 유력한 후보가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이 나타났다.

광덕지구의 한 상인은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다른 후보를 찍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놨고, 다른 상인은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표로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 토박이라고 밝힌 김모(65·춘양면)씨는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화순 출신이어서 관심이 가는데 당선 가능성은 어떤지 모르겠다"며 "농민의 고충을 잘 아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TX 나주역 경유 공방 치열 최인기·배기운 양자대결 박빙

■ 공약과 쟁점

4명의 후보는 특색있는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문 후보는 "'농어촌교육특별법'제정을 통해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후보는 지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연 2회 공개주민평가 실시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단체·지자체가 참가하는 '당시군정 협의회' 운영 ▲정당 중심의 독선적 패거리 정치 청산 등을 공약했다.

전 후보는 "나주에 전남 최대 학교 급식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화순에는 아토피 치료센터를 건립해 자연치유 생명의학 도시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나주목 관아(제금헌) 읍성 복원 ▲전남대 의과대학 조기 이전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화순문화원 신축 ▲나주 혁신도시 내 한전과 농어촌공사고 등 특목고 설치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최대 쟁점은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준공 및 광주~목포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공약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당초 정부안에는 나주역을 경유하도록 했는데 내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KTX가 나주역을 경유치 않고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로 가는 민주당 총선공약이 발표됐다"며 "이를 막지 못한 배 후보는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에 반드시 진출해 나주의 자존심과 KTX 나주역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반면 배 후보는 "호남고속철을 무안공항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나주역 경유 노선이 제외된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KTX나주유치위원장에 임명된 만큼 나주역 경유를 관철하겠다"고 반박했다.

■ 판세 및 변수

이 지역의 선거구도는 '최인기 대 배기운' 후보 간 대결이라기보다 '최인기 대 반(反) 최인기' 대결 양상으로 보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임호경 전 화순군수 등 최 후보와 갈등관계인 지역 정치권 유력인사들이 배 후보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배 후보 지지세력의 중심이 전직 시장·군수라면 현역 나주시장과 화순군수는 최 후보가 공천에 영향을 미친 인사들이어서 전·현직 기초단체장 간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25일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 최 후보가 39.9%의 지지율을 얻어 34.4%를 기록한 배 후보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인 5.5%포인트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박빙의 판세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나주와 화순 간 유권자 비율이 57% 대 43% 수준이어서 나주에서 격차를 벌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 속에 나주에서는 최 후보가 43.9%대 32.9%로, 화순에서는 배 후보가 36.4% 대 34.6%로 각각 앞섰다.

하지만, 2일 현재 최 후보 측은 "KTX 나주 경유 문제가 터지면서 배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기초의원·광역의원이 대부분 탈당, 조직적으로도 배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 후보 측은 "투표일이 가까워 올수록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이미 역전을 이뤘고 선거 승리가 목전에 왔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선거 막판 후보자 간 상호 비방과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지도부 충청권 공략 총출동

여야 지도부는 3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사이에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천안·공주·부여·보령·태안·당진 등 충남 6개 지역을 들른 뒤 경기 평택·오산·수원을 찾아 자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천안터미널 앞에서 열린 천안 합동유세에서 "야당의 목적이 불법사찰을 밝히는 것인가,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뒤 "야당이 지금 조금 이상하다"며 "정말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한 특검, 제가 야당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오전에는 제주도에서 64주기를 맞은 4·3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총선 후보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 들러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 여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된다"며 야권연대 승리로 희망을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사는 이후 충북 청주와 진평에서 지원 유세를 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인천과 고양에서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이명박·새누리 정권은 물가불안, 경제불안, 민생불안, 안보불안 모든 면에서 불안 정권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1 총선·보선 현장

박혜자 "노인 일자리 창출 주력"

민주통합당 박혜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3일 선거구내 경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년에도 적절한 일을 찾아 하는 것이 자기 만족과 건강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당선되면 어르신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어 "가정과 사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노년 일자리문제를 접근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형일 "주민 편의시설 확충"

무소속 양형일 광주 동구 국회의원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체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체육 전용구장 신축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주부 및 어르신을 위한 컴퓨터 학습센터 운영과 노인 생활체육·복지시설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동구의 비활성화 건물과 주민자치센터 등을 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갑 "새천년대교 피해 보상을"

무소속 한화갑 무안·신안 국회의원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안군 압해~암태를 잇는 새천년대교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추가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발주처인 익산지방관리청은 어민의 입장을 우선 생각해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어업보상 전문가들과 상의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희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통합진보당 김관희 광주 동구 후보는 3일 "생활체육 동호회는 지역마다 잘 조직돼 있지만, 지역별 문화 예술동호회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다"며 "'문화 동구'에 걸맞게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학·연극·풍물·노래·사진 등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충훈, 순천 예술인 지지받아

'순천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들이 3일 순천문화예술회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가 순천시의 문화예술을 잘 이해하고, 미래 순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어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후보의 정책공약 중에 순천만의 생태명소를 생태문화로 승화시키고, '순천 아고라'라는 문화적 콘텐츠의 기틀을 마련해 순천을 문화도시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